

父母와分居子女간의 相互連絡實態

朴光模* · 姜福秀** · 李性寬***

—Abstract—

A Survey on Communication Statu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Kwang Mo Park, Pock Soo Kang, Sung Kwan Lee

Today, elderly people has desperately felt isolation and desolation due to the loss of activity at home and society by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and the tendency of nuclear family. The mutual-relationship between parants and their children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s isolation and desolation.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utual-communication by visiting, telephone and letter on 678 parents over 55 years of age and 1,316 their adult children from September 1st to 30th, 1982. It was investigated with questionnaire by students.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from children to parents was highest in 25.4% by telephone and 21.6% by visiting, 4 times a month. Correspondence of letter showed only 18.1% in a year.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was highest 16.1% by telephone and 15.6% by visiting, 4 times a month. Correspondence of letter showed only 11.3% in a year.

Urban parents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rural parents by visiting and telephone, but lower by letter. The older age group of children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the younger by visiting and telephone but 3rd decade was highest by letter.

The younger age group of parents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older age group. Mother was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father by visiting and telephone, but father by letter. Higher education level group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lower education level group. Merchants and factory worker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by visiting and telephone, but officials by letter.

Upper class group in socio-economic status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lower class group generally, but lower class group dy letter from parents to children. The group within samedistri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by visiting and telephone, but the group within long distance by letter.

* 경북대 보건대학원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 Buk University

** 영남대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Yeong Nam University

*** 계명대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Gye Myung Univsit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by sex.

Characteristics	Male (N=252)	Female (N=426)	Total (N678)
Residence			
City	125(49.6%)	284(66.7%)	409(60.3%)
Suburb	43(17.1)	48(11.3)	91(13.4)
Village	84(33.3)	94(22.1)	178(26.3)
Age			
55—59	66(26.2)	25(5.9)	91(13.4)
60—64	63(25.0)	79(18.5)	142(20.9)
65—69	58(23.0)	126(29.6)	184(27.1)
70+	65(25.8)	196(46.0)	261(38.5)
Educational level			
No schooling*	59(23.4)	251(58.9)	310(45.7)
Primary school	97(38.5)	120(28.2)	217(32.0)
Middle or high school	55(21.8)	19(4.5)	74(10.9)
College	22(8.7)	4(0.9)	26(3.8)
The others*	19(7.5)	32(7.5)	51(7.5)
Occupation			
official	19(7.5)	1(0.2)	20(2.9)
Farming or fisheries	73(29.0)	28(6.6)	101(14.9)
Commerce or industry	31(12.3)	10(2.3)	41(6.0)
The others	14(5.6)	5(1.2)	19(2.8)
Unemployed	115(45.6)	382(89.7)	497(73.3)
Socio-economic status			
Upper	14(5.6)	24(5.6)	38(5.6)
Middle	206(81.7)	374(87.8)	580(85.5)
Lower	32(12.7)	28(6.6)	60(8.8)

* No schooling: include of illiteracy.

* The others: include of informal education.

I. 緒 論

오늘날 醫學 및 公衆保健學의 발전과 生活水準의 향상등으로 平均壽命이 延長되고 老人人口가 增加趨勢에 있다. 따라서 老齡人口의 保健問題 및 老後生活의 안정 등 老人問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世界保健機構에서도 1982年을 老人의 해로 정하고 老人 福祉增進에 힘써 왔다.

그러나 高度의 産業化와 都市化로 인한 社會構造의 변화는 人口移動을 촉진시켜 전통적인 氏族社會를 소멸시키고 또한 家族의 분리를 초래하여 老人들은 子女

와 親戚으로부터 격리되어 전통적 農耕社會에서 볼 수 있던 老人의 家父長的인 권위와 위엄은 거의 사라져가고 經濟的 能力이나 地位는 低下되었다. 더구나 核家族化의 趨勢는 父母에 대한 尊敬心, 孝道, 扶養義務 등에 대한 의식을 더욱 약화시켜 놓았다.

元과 朴¹⁾은 老人福祉問題를 研究하여 老人은 家庭과 社會로부터 疎外당하고 있다고 했다. 社會는 停年退職이라는 이름 아래 社會活動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여 家庭에서는 家父長的인 役割이 점차 喪失되어가고 있고 老人들의 精神의 불안과 갈등을 加重시켜 병리적 精神障害나 自殺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老後生活의 안정을 위해 老人健康을 爲始한 老人福祉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Characteristics	Eldest son (N=565)	Second son (N=400)	Eldest daughter (N=526)	Second daughter (N=336)	Total (N=1857)
Age					
20-29	27(4.5%)	36(9.0%)	49(9.3%)	60(17.9%)	172(9.3%)
30-39	141(23.7)	150(37.5)	182(34.6)	152(45.2)	625(33.7)
40-49	295(49.6)	185(46.3)	188(35.7)	98(29.2)	766(41.2)
50+	132(22.2)	29(7.3)	107(20.3)	26(7.7)	294(15.8)
Educational level					
No schooling	13(2.2)	12(2.8)	20(3.8)	9(2.7)	54(2.9)
Primary school	114(19.2)	77(19.3)	222(42.2)	135(40.2)	548(29.5)
Middle or high school	326(54.8)	237(59.3)	244(46.4)	165(49.1)	972(52.3)
College	138(23.2)	71(17.8)	34(6.5)	24(7.1)	267(14.4)
The others	4(0.7)	3(0.8)	6(1.1)	3(0.9)	16(0.9)
Occupation					
Official	197(33.1)	139(34.8)	22(4.2)	16(4.8)	374(20.1)
Farming or fisheries	145(24.4)	65(16.3)	49(9.3)	26(7.7)	285(15.4)
Commerce or industry	182(30.6)	153(38.3)	62(11.8)	38(11.3)	435(23.4)
The others	43(7.2)	27(6.8)	5(1.0)	6(1.8)	81(4.4)
Unemployed	28(4.7)	16(4.0)	388(73.8)	250(74.4)	682(36.7)
Socio-economic status					
Upper	46(7.7)	50(12.5)	66(12.5)	53(15.8)	215(11.6)
Middle	491(82.5)	300(75.0)	411(78.1)	260(77.4)	1482(78.7)
Lower	58(9.8)	50(12.5)	49(9.3)	23(6.9)	180(9.7)

社對策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우선 父母와 子女間의 빈번하고도 원활한 連絡은 老人들의 疎外感과 孤獨感을 경감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研究로는 李²⁾의 都市人의 親族間의 往來 및 崔³⁾의 現代家族研究에서 父母와 長男과의 往來에 의한 連絡實態에 대한 報告를 한 것 등 몇 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著者は 父母와 長男, 次男, 長女, 次女間의 往來, 電話, 便紙 등의 方法別에 따른 連絡實態를 파악함으로써 老人들의 疎外感, 孤獨感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기 위하여 本研究을 시도하였다.

II. 對象 및 方法

調査對象은 55세 이상의 父母 678명이 있는데 그 중 大邱 409명, 漆谷郡 및 慶山郡 91명, 尙州 및 甘浦가 178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子女는 총 1,857명 중 同

居子女가 541명, 分居子女가 1,316명이었다. 父母와 子女의 일반 특성은 表 1,2와 같다.

本調査는 1982年 9月 1일부터 9月 30일까지 1개월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調査員으로 中·高等學校 學生은 活用하였으며, 사전에 設問紙 기입 方法을 教育시킨 후 各 家庭의 對象者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調査하게 하고 設問紙를 회수하여 分析하였다.

居住地別로는 大邱를 都市로, 慶山郡 등 大邱市와 인접한 郡을 都市郊外로 그리고 慶北의 甘浦 등 農漁村地域을 시골로 정하였다.

父母와 子女間의 居住距離는 양쪽 모두 大邱市나 同一郡에 居住할 경우 同一地域으로 간주하고 어느 한쪽이 隣接郡에 위치할 경우 近距離, 隣接郡을 넘어 慶北道內에 위치할 경우 中距離, 他道에 위치할 경우 長距離로 간주하였다(表 3).

그리고 連絡을 하게 되는 이유는 生日, 疾病, 名節, 祭祀, 問安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本調査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평상시에 접촉하는 빈도를 分析하였으며, 子女도 長男, 次男, 長女, 次女로 제한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 distribution of proximity of children from parent' residence.

Proximity	Eldest son (N=595)	Second son (N=400)	Eldest daughter (N=526)	Second daughter (N=336)	Total (N=1857)
Same household	377(63.4%)	116(29.0%)	28(5.3%)	20(6.0%)	541(29.1%)
Same district	76(12.8)	120(30.0)	223(42.4)	142(42.3)	561(30.2)
Short distance	33(5.6)	26(6.5)	57(10.8)	29(8.6)	145(7.8)
Middle distance	39(6.6)	42(10.5)	80(15.2)	47(14.0)	208(11.2)
Long distance	70(11.8)	96(24.0)	138(26.2)	98(29.2)	402(21.7)

하였고, 生活程度는 調査員의 주관적 판단에 위하여 上, 中, 下로 나누어 分析하였다.

II. 成 績

分居子女들의 父母에게 행한 連絡方法은 電話連絡이 제일 높았고, 다음이 往來의 경우이며, 便紙는 月 2회 이상 하는 子女가 한 사람도 없었다.

往來의 회수는 年 1회 이상이 98.5%, 月 1회 이상이 47.9%였고 月 4회 이상은 21.6%였다.

月 4회 이상 往來의 경우 長男은 24.3%, 次男 22.9%, 長女 20.3%, 次女 20.6%로 아들이 딸보다 그 회수가 높았다.

電話의 회수는 年 1회 이상이 100%, 月 1회 이상이 55.7%였고 月 4회 이상은 26.4%였다.

月 4회 이상 電話의 경우 長男 26.3%, 次男 30.7% 長女 25.8%, 次女 22.5%로 아들이 딸보다 그 회수가 높았으며, 아들 중 次男이 長男보다 높았다.

便紙의 회수는 年 1회 이상이 18.1%, 月 1회가 1.7%에 불과했다.

月 1회 便紙의 경우 長男 4.1%, 次男 2.1%, 長女 1.0%, 次女 0.6%로 아들이 딸보다 회수가 높았다(表 4).

父母가 그들의 子女에게 행한 連絡 方法도 電話連絡이 제일 높았고 다음이 往來의 경우이며, 便紙는 月 2회 이상하는 子女가 한 사람도 없었다.

往來의 회수는 年 1회 이상이 82.9%, 月 1회 이상이 35.9%였고 月 4회 이상은 15.6%였다.

月 4회 이상 往來의 경우는 長男에게 20.2%, 次男에게 19.4%, 長女에게 13.7%, 次女에게 12.2%로 아들에게가 딸에게 보다 높았다.

電話의 회수는 年 1회 이상이 65.5%, 月 1회 이상이 34.1%였고 月 4회 이상은 16.1%였다.

月 4회 이상 電話의 경우도 長男에게 16.5%, 次男에게 17.7%, 長女에게 16.7%, 次女에게 12.9%로 아

들에게가 딸에게보다 높았으며, 아들 중 次男에게가 長男에게보다 높았다.

便紙의 회수는 年 1회 이상이 11.3%, 月 1회가 1.4%에 불과했다.

月 1회 便紙의 경우 長男과 次男에게 각각 1.8%, 長女 1.4%, 次女 1.0%로 아들에게가 딸에게보다 높았다(表 5).

父母의 居住地別 子女가 父母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都市에서 年 1회 이상이 98.5%, 100% 月 1회 이상이 57.7%, 64.0% 月 4회 이상이 25.9%, 32.4%였고, 시골에서는 年 1회 이상이 98.5%, 100% 月 1회 이상이 27.2%, 34.5% 月 4회 이상이 13.0%, 14.4%로써 都市가 시골보다 높았으며, 便紙는 시골에서 年 1회 이상이 34.9% 月 1회가 3.0%로써, 都市의 年 1회 이상 11.2% 月 1회 1.1%보다 높았다(表 6).

父母가 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都市에서 年 1회 이상이 80.0%, 62.8% 月 1회 이상이 39.8%, 40.6% 月 4회 이상이 17.2%, 20.7%였고, 시골에서는 年 1회 이상이 86.1%, 71.3% 月 1회 이상이 27.5%, 18.4% 月 4회 이상이 11.8%, 6.3%로써 都市가 시골보다 높았으며, 편지는 시골에서 年 1회 이상이 23.4% 月 1회 2.7%로써, 都市의 年 1회 이상 6.1% 月 1회 1.0%보다 높았다(表 7).

子女의 年齡別로 父母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20~29세가 年 1회 이상 98.6%, 100% 月 1회 이상 39.8%, 52.1% 月 4회 이상 15.9%, 21.7%로 그 회수가 제일 높아서, 年齡이 높을수록 그 빈도는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便紙는 30~39세가 年 1회 이상 22.1%, 月 1회 3.0%로써, 제일 높았다(表 8).

父母의 年齡別로 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55~59세가 往來 電話는 年 1회 이상 96.0%, 95.0% 月 1회 이상 49.6%, 49.4% 月 4회 이상 20.3%, 25.4%였고 便紙는 年 1회 이상 15.5%, 月 1회 4.1%로써 그 회수가 제일 높았으며 年齡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from children to parents.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Eldest son		Second son		Total		Eldest son		Second son		Total		Eldest son		Second son		Total	
	(N=218)	(N=284)	(N=493)	(N=316)	(N=1316)	(N=1316)	(N=133)	(N=192)	(N=275)	(N=178)	(N=778)	(N=778)	(N=218)	(N=284)	(N=498)	(N=284)	(N=498)	(N=1316)
4 or more per month	24.3%	22.9%	20.3%	20.6%	21.6%	26.3%	30.7%	25.8%	22.5%	26.4%	—	—	—	—	—	—	—	—
2 or 3 per month	13.8	13.4	10.4	8.5	11.2	21.8	17.7	16.4	17.4	17.9	—	—	—	—	—	—	—	—
1 per month	17.4	14.4	14.5	14.9	15.1	14.3	9.4	12.4	10.1	11.4	4.1%	2.1%	1.0%	0.6%	1.7%	—	—	—
3 or more per year	22.5	21.8	25.5	25.6	24.2	27.1	24.0	30.2	33.7	28.9	8.7	8.8	5.2	7.6	7.1	—	—	—
1 or 2 per year	22.0	27.5	27.3	27.2	26.4	10.5	18.2	15.3	16.3	15.4	8.7	13.0	8.0	8.2	9.3	—	—	—
0 per year	—	—	2.0	3.2	1.5	—	—	—	—	—	78.4	76.1	85.7	83.5	81.9	—	—	—

Table 5.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from parents to children.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Eldest son		Second son		Total		Eldest son		Second son		Total		Eldest son		Second son		Total	
	(N=218)	(N=284)	(N=498)	(N=316)	(N=1316)	(N=1316)	(N=133)	(N=192)	(N=275)	(N=178)	(N=778)	(N=778)	(N=218)	(N=284)	(N=498)	(N=284)	(N=498)	(N=1316)
4 or more per month	20.2%	19.4%	13.8%	12.0%	15.6%	16.5%	17.7%	16.7%	12.9%	16.1%	—	—	—	—	—	—	—	—
2 or 3 per month	11.5	9.9	7.0	9.5	9.0	7.5	12.0	10.9	10.1	10.4	—	—	—	—	—	—	—	—
1 per month	11.9	13.4	11.0	9.5	11.3	9.0	5.7	7.6	8.4	7.6	1.8%	1.8%	1.4%	1.0%	1.4%	—	—	—
3 or more per year	22.5	20.1	15.5	18.4	18.3	17.3	9.4	17.5	14.6	14.8	6.4	4.6	2.4	2.9	3.7	—	—	—
1 or 2 per year	25.2	33.1	29.1	26.3	28.7	17.3	19.3	15.3	15.2	16.6	7.3	6.3	7.6	3.2	6.2	—	—	—
0 per year	8.7	4.2	23.7	24.4	17.2	32.3	35.9	32.0	38.8	34.6	84.4	87.3	88.6	93.0	88.7	—	—	—

Table 6.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from children to parents by parents residence.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City (N=787)	Suburb (N=191)	Village (N=338)	City (N=513)	Suburb (N=91)	Village (N=174)	City (N=787)	Suburb (N=191)	Village (N=338)
4 or more per month	25.9%	18.9%	13.0%	32.4%	15.4%	14.4%	—	—	—
2 or 3 per month	13.1	11.5	6.5	21.3	14.3	9.8	—	—	—
1 per month	18.7	13.1	7.7	10.3	19.8	10.3	1.1%	2.1%	3.0%
3 or more per year	20.1	26.7	32.5	25.7	25.3	40.2	4.8	4.7	13.8
1 or 2 per year	20.7	28.3	38.8	10.3	25.3	25.3	5.2	10.5	18.1
0 per year	1.5	1.6	1.5	—	—	—	88.8	82.7	65.1

Table 7.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from parents to children by parents residence.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City (N=787)	Suburb (N=191)	Village (N=338)	City (N=513)	Suburb (N=91)	Village (N=174)	City (N=787)	Suburb (N=191)	Village (N=338)
4 or more per month	17.2%	15.7%	11.8%	20.7%	8.8%	6.3%	—	—	—
2 or 3 per month	10.4	7.3	6.5	11.9	8.8	6.9	—	—	—
1 per month	12.2	11.5	9.2	8.0	9.9	5.2	1.0%	1.1%	2.7%
3 or more per year	14.7	22.5	24.3	11.1	6.6	29.9	2.2	2.1	8.0
1 or 2 per year	25.5	31.4	34.4	11.1	35.2	23.0	2.9	8.4	12.7
0 per year	20.0	11.5	13.9	37.2	30.8	28.7	93.9	88.5	76.6

이었다(表 9).

父母의 性別로 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母가 年 1회 이상 83.6%, 66.2% 月 1회 이상 38.4%, 37.3% 月 4회 이상 16.0%, 18.0%로 父의 年 1회 이상 81.5%, 64.3% 月 1회 이상 31.6%, 28.7% 月 4회 이상 14.8%, 12.8%보다 높았으나, 便紙는 父가 年 1회 이상 13.8%, 月 1회 2.6%로 母의 年 1회 이상 9.8% 月 1회 0.7%보다 높았다(表 10),

子女의 教育程度別로 父母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大卒 이상에서 往來와 電話가 年 1회 이상 98.6%, 100% 月 1회 이상 53.3%, 70.4% 月 4회 이상 25.0% 30.2%였고, 便紙는 年 1회 이상 19.3%, 月 1회 3.3%로써, 그 회수가 제일 높았으며 學歷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였다(表 11).

父母의 教育程度別로 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大卒 이상에서 往來와 電話는 年 1회 이상 84.0%, 83.3% 月 1회 이상 42.0%, 3.88% 月 4회 이상이 각각 19.4%였고, 便紙는 年 1회 이상 19.4%, 月 1회 3.2%로 그 회수가 제일 높았으며, 學歷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였다(表 12).

子女의 職業別로 父母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

來와 電話는 商工業이 年 1회 이상 98.3%, 100% 月 1회 이상 52.0%, 56.9% 月 4회 이상 23.2%, 31.7%로 제일 높았으나, 便紙는 公職 및 農·水産業이 年 1회 이상 15.6%, 27.0% 月 1회 2.2%, 2.0%로 商工業의 年 1회 이상 15.1%, 月 1회 1.0%보다 높았다(表 13).

父母의 職業別로 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商工業이 年 1회 이상 80.3%, 57.7% 月 1회 이상 51.3%, 40.7% 月 4회 이상 26.3%, 22.0%로 제일 높았으며, 便紙는 年 1회 이상은 農·水産業이 17.4%로 제일 높았으나, 月 1회는 公職이 2.7%로 제일 높았다(表 14).

子女의 生活程度別로 父母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上류 계층이 年 1회 이상 99.2%, 100% 月 1회 이상 61.8%, 66.7% 月 4회 이상 26.2%, 30.9%로 하류 계층의 年 1회 이상 98.6%, 100% 月 1회 이상 40.9%, 41.0% 月 4회 이상 17.5% 20.5%보다 높았고, 便紙는 上류 계층이 年 1회 이상 22.4% 月 1회 4.7%인데 비하여 하류 계층은 年 1회 이상이 7.3%였고 月 1회 이상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였다(表 15).

Table 8.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by children's age.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20-29 (N=63)	30-39 (N=305)	40-49 (N=668)	50+ (N=280)	20-29 (N=23)	30-39 (N=192)	40-49 (N=417)	50+ (N=146)	20-29 (N=63)	30-39 (N=305)	40-49 (N=668)	50+ (N=280)
4 or more per month	15.9%	18.0%	22.2%	25.4%	21.7%	23.4%	25.7%	32.9%	--	--	--	--
2 or 3 per month	4.8	11.8	11.2	11.8	8.7	14.1	19.7	19.2	--	--	--	--
1 per month	19.1	15.1	14.7	15.0	21.7	12.5	11.3	8.9	--	3.0%	2.0%	--
3 or more per year	28.6	25.6	25.0	20.0	30.4	30.2	30.2	23.3	7.9%	8.9	7.5	4.3%
1 or 2 per year	30.2	27.9	25.5	26.4	17.4	19.8	13.2	15.8	9.5	10.2	9.7	7.1
0 per year	1.6	1.6	1.5	1.4	--	--	--	--	82.5	78.0	80.8	88.0

Table 9.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by parents' age.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55-59 (N=123)	60-64 (M=276)	65-69 (N=376)	70+ (N=541)	55-59 (N=79)	60-64 (N=134)	65-69 (N=218)	70+ (N=347)	55-59 (N=123)	60-64 (N=276)	65-69 (N=376)	70+ (N=541)
4 or more per month	20.3%	18.1%	14.9%	13.7%	25.3%	24.6%	17.4%	9.8%	--	--	--	--
2 or 3 per month	16.3	9.4	9.3	6.8	12.7	11.9	11.0	8.9	--	--	--	--
1 per month	13.0	13.4	10.4	10.5	11.4	9.0	10.6	4.3	4.1%	2.9%	0.8%	0.6%
3 or more per year	15.5	21.4	17.8	17.7	31.7	18.7	9.6	12.7	7.3	5.1	2.9	2.6
1 or 2 per year	30.9	32.3	26.3	27.9	13.9	26.9	12.8	15.6	4.1	7.6	6.9	6.5
0 per year	4.0	5.4	21.3	23.3	5.1	9.0	38.5	48.7	84.6	85.1	89.4	90.9

Table 10.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by parents' sex.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Male (N=493)	Female (N=823)	Male (N=290)	Female (N=488)	Male (N=493)	Female (N=823)
4or more per month	14.8%	16.0%	12.8%	18.0%	—	—
2or3 per month	6.5	10.5	9.7	10.9	—	—
1 per month	10.3	11.9	6.2	8.4	2.6%	0.7%
3or more per year	18.9	18.0	19.0	12.3	4.9	2.9
1or2 per year	31.0	27.2	16.6	16.6	6.3	6.2
0 per year	18.5	16.4	35.9	33.9	86.2	90.2

父母의 生活程度別 로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상류 계층이 年 1회 이상 85.9%, 71.1% 月 1회 이상 50.0%, 55.3% 月 4회 이상 17.2%, 39.5%로 하류 계층의 年 1회 이상 87.3%, 72.0% 月 1회 이상 36.3%, 18.8% 月 4회 이상 10.8%, 9.4% 보다 높아서,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便紙는 하류 계층이 年 1회 이상 12.7% 月 1회 2.9%로 제일 높으며, 生活程度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였다(表 16).

居住地間距離別로 子女가 父母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同一地域이 年 1회 이상은 모두 100%였고 月 1회 이상은 66.8%, 59.2% 月 4회 이상은 38.5%, 32.5%로 제일 높아서, 距離가 가까울수록 그 회수는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便紙는 長距離가 年 1회 이상 33.3% 月 1회 2.5%로 제일 높아서 距離가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였다(表 17).

居住地間距離別 父母사 子女에게 한 連絡 빈도를 보면, 往來와 電話는 同一地域이 年 1회 이상 100%, 56.1% 月 1회 이상 67.5%, 37.2% 月 4회 이상 30.7%, 20.0%로 제일 높아서, 距離가 가까울수록 그 회수는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便紙는 長距離가 年 1회 이상 22.6% 月 1회 2.2%로 제일 높아서, 距離가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였다(表 18).

IV. 考 察

우리 나라는 經濟成長으로 인한 都市化 産業化로 과거 農耕時代의 大家族制度에서 벗어나 都市生活에 편리한 核家族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家族의 分居가 늘어나고, 老人은 家庭과 社會에서 役割을 喪失하게 되어 疎外와 孤獨에 빠져 精神的인 장애를 받게 된다. 아직 우리 社會는 西歐처럼 核家族化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언제 西歐의 核家族과 같은 많은 分居狀態가 올 지 모른다.

老人의 疎外感과 孤獨感 해결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父母와 子女의 긴밀한 유대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父母와 子女의 유대 관계는 접촉의 內容 및 心理的인 面이 중요하겠지만 本調査는 往來, 電話, 便紙의 객관적 빈도로써만 유대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이것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父母와 子女가 서로 자주 접촉하고 連絡한다는 것은 상호 人情의 표시이고 나아가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父母와 子女間의 連絡 빈도에서 먼저 方法別 分布를 보면 電話가 子女와 父母에서 각각 月 4회 이상 26.4%, 16.1%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往來를 하지 못한 경우 電話가 가장 편리한 連絡手段이 될 수 있으면 便紙는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子女와 父母에게 각각 81.9%, 88.7%로 매우 낮은 것은 電話가 있을 경우 便紙 대신에 편리하고 신속한 電話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往來, 來電, 話 便紙의 빈도에서 모두 父母와 아들 사이가 父母와 딸 사이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아들이 父母에 대한 扶養者務와 父母가 아들에 대한 依存心이 딸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 같다. 電話 빈도에서 父母와 次男 사이가 父母와 長男 사이보다 높은 것은 距離上의 문제로써 次男이 長男보다 同居는 적으나 同一地域에 더 많이 居住하여 往來 대신 電話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Shanass⁴⁾의 成績에 의하면 老齡父母의 3분의 2 이상이 적어도 週 1회 이상 그들의 子女와 만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電話나 便紙를 통하여 접촉한다고 하였고 李²⁾의 서울시 가정부 192명을 對象으로 都市家族의 親族關係에 관한 調査에서보면 往來가 月 4회 이상은 子女로부터 父母에게가 18.0%, 父母로부터 子女에게가 15.7%라고 崔³⁾의 父母와 長男間의 往來 調査에서는 子女로부터 父母에게가 9.0%, 父母로

Table 13.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by times children's occupation.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Farming Official or fish- eries (N=156)	The industry others (N=410)	Unem- ployed (N=477)	Farming Official or fish- eries (N=128)	The industry others (N=262)	Unem- ployed (N=134)	Farming Official or fish- eries (N=156)	The industry others (N=410)	Unem- ployed (N=477)
4 or more per month	21.4%	17.3%	23.2%	24.0%	16.4%	31.7%	28.6%	41.2%	—
2 or 3 per month	12.5	7.7	11.7	21.8	10.2	16.0	21.4	20.6	—
1 per month	17.0	10.9	17.1	14.1	10.9	9.2	16.7	—	2.2%
3 or more per year	27.2	25.6	23.4	27.6	33.6	30.2	16.7	29.4	5.8
1 or 2 per year	20.1	37.2	22.9	12.5	28.9	13.0	16.6	8.8	7.6
0 per year	1.8	1.3	1.7	—	—	—	—	—	84.4
									73.1
									84.9
									81.6
									81.1

Table 14.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by parents' occupation.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Farming Official or fish- eries (N=37)	The industry others (N=76)	Unem- ployed (N=923)	Farming Official or fish- eries (N=33)	The industry others (N=59)	Unem- ployed (N=519)	Farming Official or fish- eries (N=37)	The industry others (N=76)	Unem- ployed (N=923)
4 or more per month	8.1%	11.3%	26.3%	—	6.2%	22.0%	—	9.5%	19.5%
2 or 3 per month	2.7	3.2	11.8	3.0%	4.1	6.8	—	14.3	12.9
1 per month	5.4	10.1	13.2	3.0	5.5	11.9	2.7%	9.5	7.9
3 or more per year	10.8	24.3	7.9	30.3	15.1	13.6	8.1	19.0	13.7
1 or 2 per year	48.7	32.0	21.1	18.2	23.3	3.4	—	—	16.8
0 per year	24.3	19.0	19.7	45.5	45.9	42.4	89.2	88.2	29.3
									82.6
									97.0
									90.0

Table 15.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by children's socio-economic status.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Upper (N=107)	Middle (N=1072)	Lower (N=137)	Upper (N=81)	Middle (N=658)	Lower (N=39)	Upper (N=107)	Middle (N=1072)	Lower (N=137)
4 or more per month	25.2%	21.6%	17.5%	30.9%	26.1%	20.5%	—	—	—
2 or 3 per month	15.0	10.8	11.0	21.0	17.8	12.8	—	—	—
1 per month	20.6	14.8	12.4	14.8	11.2	7.7	4.7%	1.6%	—
3 or more per year	21.5	24.4	24.8	22.2	29.2	38.5	6.5	7.8	2.2%
1 or 2 per year	15.9	26.7	32.9	11.1	15.7	20.5	11.2	9.6	5.1
0 per year	0.9	1.6	1.5	—	—	—	77.6	81.0	92.7

Table 16.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by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Upper (N=64)	Middle (N=1150)	Lower (N=102)	Upper (N=38)	Middle (N=708)	Lower (N=32)	Upper (N=64)	Middle (N=1150)	Lower (N=102)
4 or more per month	17.2%	15.9%	10.8%	39.5%	15.1%	9.4%	—	—	—
2 or 3 per month	10.9	8.3	15.7	10.5	10.6	6.3	—	—	—
1 per month	21.9	10.9	9.8	5.3	7.9	3.1	—	1.4%	2.9%
3 or more per year	12.5	18.1	24.5	10.5	14.1	34.4	—	3.7	4.9
1 or 2 per year	23.4	29.1	26.5	5.3	17.1	18.8	3.1%	6.5	4.9
0 per year	14.1	17.7	12.8	29.0	35.2	28.1	96.9	88.4	87.3

부터 子女에게가 7.5%로 나타났는데 本調査와 차이는 對象, 時期 및 地域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父母居住地別 빈도에서 보면 都市가 시골보다 往來, 電話에서는 더 높은 경향이 있고 便紙는 더 낮은 경향이 있는데, 崔³⁾의 調査에서 시골은 都市보다 分居狀態의 수가 적었고 元等¹⁾ 調査에서는 도시에 移人人口의 상당수가 시골에서 들어온 離農人口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골에서의 分居 이유는 子女들이 職業을 구하기 위하여 都市로 移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 距離上으로 父母와 子女가 멀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西歐는 과거 Wirth⁵⁾가 都市産業化된 地域에서는 직장 동료와 같은 2次集團과의 강한 유대 관계 때문인 家族과 같은 1次集團과는 멀어진다고 하여 核家族과 大家族의 격리를 주장하였으나, 최근에 Litwak⁶⁾는 核家族이 大家族으로부터 반드시 깨어지지 않고 修正大家族 조직을 취하며 전통적 大家族이 地理的 근접, 職業的 族벌주의, 엄격한 권위 관계의 특성이 있는 반면, 修正大家族 조직은 地理的, 職業的 移動은 있으나 동시에 家族間 連絡과 통합을 유지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하여 都市에서 父母와 子女의 활발한

유대 관계를 말해 주고 있다.

年齡別 빈도에서 보면, 子女의 年齡이 많아질수록 子女로부터 父母에게 往來와 電話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子女의 年齡이 많아질수록 職業的 經濟的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 便紙가 30代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都市로 職業을 찾아 移動한 子女가 職業의 안정을 얻어 電話가 없는 시골의 父母에게 便紙를 자주하는 時期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Stried⁷⁾는 그의 研究에서 職業的으로 성공한 子女가 성공하지 못한 子女보다 더 자주 父母와 접촉한다고 보고했다.

父母로부터 子女에게는 年齡이 낮을수록 그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年齡이 많아질수록 활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父母의 性別 빈도에서 母가 往來, 電話에서 父보다 높은 것은 Adams⁸⁾의 研究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그는 都市에서 父母子女間의 往來와 접촉은 男子의 경우보다 女子의 경우 더 빈번하고 밀접한 유대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便紙에서는 父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父가 주로 글을 많이 쓰던 우리 나라의 전통적 유교 관습이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17.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from children to parents by distance.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Same district (N=561)	Short distance (N=145)	Middle distance (N=208)	Long distance (N=402)	Same district (N=539)	Short distance (N=59)	Middle distance (N=48)	Long distance (N=132)	Same district (N=561)	Short distance (N=145)	Middle distance (N=208)	Long distance (N=402)
4 or more per month	38.5%	27.6%	13.5%	—	32.5%	32.2%	6.3%	6.1%	—	—	—	—
2 or 3 per month	13.9	19.3	12.0	4.0%	18.2	17.0	16.7	17.4	—	—	—	—
1 per month	14.4	8.3	43.3	3.7	8.5	13.6	16.7	20.5	—	0.7%	1.4%	2.5%
3 or more per year	13.4	32.4	16.4	40.6	27.8	17.0	45.8	37.1	—	3.5	7.7	13.9
1 or 2 per year	19.8	12.4	14.9	46.8	14.1	20.3	14.6	19.0	—	1.4	3.9	16.9
0 per year	—	—	—	5.0	—	—	—	—	100%	94.5	87.0	66.7

Table 18. Percent distribution of communication times from parents to children by distance.

Times	Visiting			Telephone			Letter					
	Same district (N=561)	Short distance (N=145)	Middle distance (N=203)	Long distance (N=402)	Same district (N=539)	Short distance (N=59)	Middle distance (N=48)	Long distance (N=132)	Same district (N=561)	Short distance (N=145)	Middle distance (N=208)	Long distance (N=402)
4 or more per month	30.7%	14.5%	5.8%	—	20.0%	17.0%	8.3%	2.3%	—	—	—	—
2 or 3 per month	17.7	4.8	2.4	1.7%	12.2	10.2	8.3	3.8	—	—	—	—
1 per month	19.1	6.9	12.5	1.5	5.0	10.2	27.1	9.9	—	—	1.0%	2.2%
3 or more per year	12.7	21.4	32.7	17.7	12.6	10.2	22.9	22.7	—	1.4%	3.4	7.2
1 or 2 per year	20.0	14.5	35.6	42.3	6.3	11.9	18.8	59.8	—	2.8	3.4	13.2
0 per year	—	37.9	11.1	36.8	43.8	40.7	14.6	1.5	100%	95.9	92.3	77.4

教育程度로 보면 往來, 電話, 便紙 모두 學歷이 높을수록 그 빈도가 높는데 이것은 學歷이 높을수록 職業的으로 인정된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李²⁾의 成績에도 大卒 이상의 子女가 父母에게 月 1~2회 이상의 往來가 55.0%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學歷이 높을수록 그 빈도가 높은 경향이였다.

職業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에서 公職과 農·水産業이 商工業보다 빈도가 낮은 것은 地理的 移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商工業은 地域的 移動이 심하지 않고 父母와 子女들이 모여 사는 경향이 많고 公職은 잦은 전출로 인한 移動이 많으며, 農·水産業은 子女들이 취업 때문에 시골에서 都市로 移動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dams⁸⁾는 勞働者階級에서는 地域的 移動이 심하지 않다고 보고하였고 Rose⁹⁾는 전문직, 관리자 등의 특수층은 취업을 위해 먼 거리로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하여 職業과 地理的 移動의 관계를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便紙는 公職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公職은 글을 쓰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生活程度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에서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그 빈도가 높는데 이것은 經濟的 安정과 관련된 것 같고 父母로부터 子女에게 便紙는 生活程度가 낮을수록 높는데, 이것은 하루 계층 父母의 職業을 찾아 都市로 移動한 子女에 대한 經濟的 依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父母와 子女의 居住地間 距離別 빈도를 보면 往來는 가까운 距離에 있을수록 그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데 이것은 地理的 근접이 往來하기에 대단히 편리함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Bromley¹⁰⁾는 물리적 距離가 접촉의 빈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ohnson¹¹⁾은 California에 居住하는 父母 146명을 對象으로 면접을 통한 調査에서 父母의 83%가 한 子女의 이웃에 살고 있었고 그 子女의 대부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往來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여 距離와 접촉 빈도의 관계를 나타내 주었다. 電話도 距離가 가까울수록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요금의 차이 때문인 것 같고 便紙는 距離가 멀어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距離가 멀어 往來를 할 수 없을 경우 비용이 적고 내용을 풍부히 담을 수 있는 便紙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父母와 分居한 子女間의 連絡은 居住地, 年齡, 性, 社會經濟的 狀態에 따라 그 빈도의 차이가 있으나 核家族化로 인한 地理的인 距離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子女를 될 수 있는 한 가

까운 곳에 결혼시키거나 居住하게 하여 連絡이 긴밀히 유지되면 老後 父母들의 疎外感과 孤獨感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V. 要 約

父母와 分居子女間의 連絡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1982年 9月 1일부터 9月 30일까지 大邱市 大邱近郊 農漁村地域에 居住하는 55세 이상 父母 678명과 그들의 分居子女 1,316명에 대하여 調査한 결과 그 成績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子女가 父母에게 행한 連絡 빈도는, 方法別로 보면 電話가 月 4회 이상이 26.4%로 제일 높았고, 往來는 21.6%였으며, 便紙는 1년에 1회 이상 한 사람은 18.1%에 불과했다.

往來, 電話, 便紙 모두 아들이 딸보다 그 빈도가 높았으며 電話의 경우, 아들 중에서도 次男이 長男보다 높았다.

父母가 子女에게 행한 連絡 빈도는 方法別로 보면 電話가 月 4회 이상이 16.1%로 제일 높았고, 往來는 15.6%였으며, 便紙는 1년에 1회 이상 한 사람이 11.3%에 불과했다.

往來, 電話, 便紙 모두 아들에게 하는 경우가 딸의 경우보다 그 빈도가 높았으며 電話는 아들 중에서도 次男에게 하는 경우가 長男의 경우보다 높았다.

父母의 居住地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는 都市가 시골보다 높았고, 便紙는 시골이 높았다.

子女의 年齡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는 年齡이 높을수록 父母에게 하는 회수가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便紙는 30대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父母의 年齡別로 보면 年齡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였다.

父母의 性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는 母가 父보다 높았고, 便紙는 父가 높았다.

教育程度別로 보면 父父子女 모두 學歷이 높을수록 회수는 높았다.

職業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는 商工業에서, 便紙는 公職에서 제일 높았다.

生活程度別로 보면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그 회수는 높았으나 父母가 子女에게 한 便紙는 生活程度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였다.

距離別로 보면 往來와 電話는 距離가 가까울수록 그 회수가 높았으나, 便紙는 멀어질수록 높은 경향이였다.

그래서 父母와 分居한 子女間의 相互連絡을 居住地, 年齡, 性, 社會經濟的 狀態에 따라 그 도빈의 차이가

있으나 核家族化로 인한 地理的인 距離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元英祚·朴泰龍 : 우리나라의 老人問題와 老人福祉 老人福祉研究所報, 1 : 5-6, 1977,
2. 李効再 : 都市人の 親族關係, 韓國研究院, 서울, 1971, pp. 60-67.
3. 崔在錫 : 理代家族研究, 一志社, 서울, 1982, pp. 213-214.
4. Shanas, E. : Family help patterns and social class in three count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9 : 257-266. 1967.
5. Wirth, L. : Urbanisome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 1-24, 1938.
6. Litwak, E. : Occupational mobility and extended family cohe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 9-21, 1960.
7. Streib, G.F. : Family patterns in reti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7 : 413-414, 1965.
8. Adams, B.N. : Kinship in an urban setting. Markham Publishing Co., Chicago, 1968, pp. 2-4.
9. Rose, A.M. : Distance of migr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f 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 : 423, 1958.
10. Bromley, D.B. : The psychology of human ageing. 2nd Ed., 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75, p.132.
11. Johnson, E.S. :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Gerontologist*, 17 : 90-96, 1977.